제2장 | 자음과 모음

제2항

표준어의 자음은 다음 19개로 한다.

ㄱ ㄲ ㄴ ㄷ ㄸ ㄹ ㅁ ㅂ ㅃ ㅅ ㅆ ㅇ ㅈ ㅉ ㅊ ㅋ ㅌ ㅍ ㅎ

이 조항은 국어 자음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국어에는 19개의 자음이 있으며 이러한 자음의 개수는 방언에 따른 차이가 거의 없다. 일부 지역에 'ㅆ'이 없는 경우를 제외하면 대체로 동일한 모습을 보인다.

국어의 자음들을 발음되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양순음	치조음	경구개음	연구개음	후음
파열음	평 음	ㅂ	ㄷ		ㄱ	
	경 음	ㅃ	ㄸ		ㄲ	
	격 음	ㅍ	ㅌ		ㅋ	
마찰음	평 음		ㅅ			ㅎ
	경 음		ㅆ			
	격 음					
파찰음	평 음			ㅈ		
	경 음			ㅉ		
	격 음			ㅊ		
비 음		ㅁ	ㄴ		ㅇ	
유 음			ㄹ			

국어의 자음은 5개의 조음 위치에서 발음된다. 두 입술에서 내는 양순음, 혀끝을 치조 부위에 대거나 접근하여 내는 치조음, 혀의 앞부분을 경구개 부위에 대어 내는 경구개음, 혀의 뒷부분을 연구개 부위에 대어 내는 연구개음, 성문에서 내는 후음이 있다.

국어의 자음은 소리 나는 방식에 따라서 다양하게 분류할 수 있다. 공기를 막았다가 터뜨리는 파열음, 좁은 틈으로 공기를 마찰하여 내는 마찰음, 공기를 막았다가 마찰하여 내는 파찰음, 코로 공기를 보내어 내는 비음, 공기의 흐름을 거의 방해하지 않으며 내는 유음의 다섯 가지로 구분된다.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은 다시 평음(예사소리), 경음(된소리), 격음(거센소리)의 세 부류로 구분된다. 이러한 자음의 구분 방식은 국어의 특징 중 하나이다.

후음인 'ㅎ'은 격음이나 평음 등으로 분류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평음, 경음, 격음으로 구분하는 것은 파열음처럼 3항 대립이 있을 때 의미가 있는데, 후음은 'ㅎ' 하나로, 대립하는 다른 자음이 없다. 따라서 비음이나 유음과 마찬가지로 구분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더 알아보기

- **'ㅎ'의 지위**

'ㅎ'은 학자에 따라 격음으로 보기도 하고 평음으로 보기도 한다. 'ㅎ'이 평음인 'ㄱ, ㄷ, ㅂ, ㅈ'과 인접할 경우 두 자음이 합쳐져서 격음인 'ㅋ, ㅌ, ㅍ, ㅊ'으로 축약되는데, 이러한 변동을 설명하는 데에는 'ㅎ'을 격음으로 분류하는 것이 유리하다. 'ㅎ'이 격음이기 때문에 축약된 소리가 격음이 되었다고 설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ㅎ'은 음성적으로 유기성이 미약하여 다른 격음과 달리 쉽게 탈락하기도 한다. '좋은'이 [조:은]으로 발음되고, '낳아'가 [나아]로 발음되는 것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음성적 특성을 근거로 'ㅎ'을 평음으로 설명하기도 한다. 여기서는 'ㅎ'이 다른 자음과 달리 격음이나 평음으로 명확히 구분하기 어렵다는 현실에 근거하여 분류하지 않고 제시하였다.

제3항

표준어의 모음은 다음 21개로 한다.

ㅏ ㅐ ㅑ ㅒ ㅓ ㅔ ㅕ ㅖ ㅗ ㅘ ㅙ ㅚ ㅛ ㅜ ㅝ ㅞ ㅟ ㅠ ㅡ ㅢ ㅣ

이 조항은 국어 모음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국어에는 총 21개의 모음이 있다. 이러한 모음은 크게 단모음(單母音)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할 수 있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음이다. 반면 이중 모음은 발음할 때 입의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바뀌는 모음이다.

제시되어 있는 모음들을 단모음과 이중 모음으로 구분하면 다음과 같다.

단모음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
이중 모음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

제4항

'ㅏ ㅐ ㅓ ㅔ ㅗ ㅚ ㅜ ㅟ ㅡ ㅣ'는 단모음(單母音)으로 발음한다.

[붙임] 'ㅚ,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다.

이 조항은 국어 단모음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국어 표준 발음으로는 10개의 단모음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자음과 달리 단모음의 개수는 지역이나 세대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다. 가령 방언에 따라 단모음의 수가 6개에서 10개까지 다양하며 같은 지역이라도 세대에 따라 차이가 나기도 한다. 그렇지만 서울말의 전통적인 발음을 기준으로 하여 10개의 단모음을 원칙으로 삼았다.

국어의 단모음을 발음상의 특징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전설 모음		후설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평순 모음	원순 모음
고모음	ㅣ	ㅟ	ㅡ	ㅜ
중모음	ㅔ	ㅚ	ㅓ	ㅗ
저모음	ㅐ		ㅏ	

단모음의 분류는 크게 혀의 위치, 입술 모양에 따라 이루어진다. 이 중 혀의 위치는 다시 전후 위치와 높이로 구별하기 때문에 실제로는 세 가지 기준에 따라 분류된다. 혀의 전후 위치에 따라 전설 모음과 후설 모음이, 혀의 높이에 따라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이, 입술 모양에 따라 원순 모음과 평순 모음이 구분된다.

이상의 단모음 중 'ㅐ'와 'ㅔ'는 현재 대부분의 세대에서 별개의 모음으로 구별되지 않고 있다. 즉 'ㅔ'와 'ㅐ'는 하나의 모음으로 합류가 일어난 것이다. 그러나 이 두 모음을 구별하는 세대가 아직은 남아 있다는 점에서 완전히 합류되지 않았고, 전통적으로 이 두 모음은 단모음으로서의 지위를 안정적으로 유지해 왔기 때문에 구별하도록 규정하였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모음의 수는 유동적인 모습을 보인다. 특히 전설 원순 모음에 해당하는 'ㅟ'와 'ㅚ'는 단모음 대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러한 발음 현실을 감안하여 [붙임]에서는 'ㅟ'와 'ㅚ'의 경우 단모음 대신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고 있다. 'ㅟ'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ㅜ[w]'와 단모음 'ㅣ'를 연속하여 발음하는 것과 같다. 'ㅚ'를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경우에는 반모음 'ㅜ[w]'와 단모음 'ㅔ'를 연속하여 발음하는 것과 같아서 'ㅞ'와 동일하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회'의 경우 'ㅚ'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회]와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훼]가 모두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제5항

‘ㅑ ㅒ ㅕ ㅖ ㅘ ㅙ ㅛ ㅝ ㅞ ㅠ ㅢ’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한다.

다만 1. 용언의 활용형에 나타나는 ‘져, 쪄, 쳐’는 [저, 쩌, 처]로 발음한다.

가지어 → 가져[가저]　　찌어 → 쪄[쩌]　　다치어 → 다쳐[다처]

다만 2. ‘예, 례’ 이외의 ‘ㅖ’는 [ㅔ]로도 발음한다.

계집[계:집/게:집]	계시다[계:시다/게:시다]
시계[시계/시게](時計)	연계[연계/연게](連繫)
메별[메별/메별](袂別)	개폐[개폐/개페](開閉)
혜택[혜:택/헤:택](惠澤)	지혜[지혜/지헤](智慧)

다만 3. 자음을 첫소리로 가지고 있는 음절의 ‘ㅢ’는 [ㅣ]로 발음한다.

늴리리	닁큼	무늬	띄어쓰기	씌어
틔어	희어	희떱다	희망	유희

다만 4. 단어의 첫음절 이외의 ‘의’는 [ㅣ]로, 조사 ‘의’는 [ㅔ]로 발음함도 허용한다.

주의[주의/주이]	협의[혀븨/혀비]
우리의[우리의/우리에]	강의의[강:의의/강:이에]

이 조항은 국어 이중 모음의 수를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 따르면 국어에는 총 11개의 이중 모음이 있다. 이러한 이중 모음은 그 구성 요소 중 하나인 반모음의 종류 및 위치에 따라 다음과 같이 분류할 수 있다.

반모음 ‘ㅣ[j]’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ㅑ, ㅒ, ㅕ, ㅖ, ㅛ, ㅠ
반모음 ‘ㅣ[j]’로 끝나는 이중 모음	ㅢ
반모음 ‘ㅗ/ㅜ[w]’로 시작하는 이중 모음	ㅘ, ㅙ, ㅝ, ㅞ

‘ㅑ, ㅒ, ㅕ, ㅖ, ㅛ, ㅠ’는 각각 반모음 ‘ㅣ[j]’와 단모음 ‘ㅏ, ㅐ, ㅓ, ㅔ, ㅗ, ㅜ’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ㅢ’는 단모음 ‘ㅡ’와 반모음 ‘ㅣ[j]’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ㅘ, ㅙ, ㅝ, ㅞ’는 각각 반모음 ‘ㅗ/ㅜ[w]’와 단모음 ‘ㅏ, ㅐ, ㅓ, ㅔ’의 결합으로 이루어진다.

한편 단모음 중 ‘ㅚ,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수도 있는데 이럴 경우 이중 모음의 수는 11개에서 12개로 늘어난다. 단모음 ‘ㅚ’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할 때 기존의 이중 모음인 ‘ㅞ’로 발음되어 이중 모음의 개수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러나 단모음 ‘ㅟ’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면 반모음 ‘ㅜ[w]’로 시작하여 단모음 ‘ㅣ’로 끝나게 되며 이러한 이중 모음은 기존 목록에 없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중 모음 수가 한 개 늘게 된다.

이중 모음은 경우에 따라서는 이중 모음이 아닌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도 있다. 이를 ‘다만 1~다만 4’까지 별도의 단서 조항으로 제시하였다.

‘다만 1’은 ‘ㅕ’의 발음과 관련된 조항이다. 여기에 따르면 ‘져, 쪄, 쳐’와 같이 ‘ㅈ, ㅉ, ㅊ’ 뒤에 오는 ‘ㅕ’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단모음 ‘ㅓ’로 발음한다. ‘묻혀, 붙여, 잊혀’ 등과 같이 표기상 ‘져, 쪄, 쳐’가 아니라도 발음상 ‘져, 쪄, 쳐’와 동일한 경우의 ‘ㅕ’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이처럼 ‘ㅈ, ㅉ, ㅊ’ 뒤에서 ‘ㅕ’가 발음되지 못하는 것은 ‘ㅈ, ㅉ, ㅊ’과 같은 경구개음 뒤에 반모음 ‘ㅣ[j]’가 연이어 발음될 수 없다는 국어의 제약 때문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쟈, 져, 죠, 쥬’, ‘쨔, 쪄, 쬬, 쮸’, ‘챠, 쳐, 쵸, 츄’ 등은 현대 국어에 와서 모두 ‘자, 저, 조, 주’, ‘짜, 쩌, 쪼, 쭈’, ‘차, 처, 초, 추’ 등으로 바뀌었으며, 한 형태소 내부에서는 표기도 발음대로 바뀌었다. 다만 ‘지-+-어, 찌-+-어, 치-+-어’ 등과 같은 용언의 활용형이 줄어들 경우에는 실제 발음과 달리 ‘져, 쪄, 쳐’와 같이 표기하므로, 이런 경우의 ‘ㅕ’는 단모음으로 발음해야 한다는 규정이 필요하게 되었다.

‘다만 2’는 ‘ㅖ’의 발음과 관련된 조항이다. 이중 모음 ‘ㅖ’는 표기대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예, 례’를 제외한 나머지 환경에서는 이중 모음 대신 단모음 [ㅔ]로 발음되는 경우가 매우 빈번하다. 그래서 이러한 발음 현실을 감안하여 ‘예, 례’와 같이 초성이 없거나 ‘ㄹ’이 초성에 있는 경우가 아닌 ‘ㅖ’는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단모음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계시다, 혜택’과 같은 단어는 표준 발음을 복수로 제시하고 있다.

‘다만 3’과 ‘다만 4’는 ‘ㅢ’의 발음과 관련된 조항이다. ‘다만 3’에서는 이중 모음 ‘ㅢ’를 반드시 단모음 [ㅣ]로만 발음해야 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늬, 틔, 희’ 등과 같이 ‘ㅇ’을 제외한 초성자 뒤에 ‘ㅢ’가 표기된 예들은 현실 발음을 반영하여 ‘ㅢ’를 [ㅣ]로 발음해야 한다. 여기에 따라 ‘무늬, 틔다, 희망’과 같은 단어는 각각 ‘[무니], [티:다], [히망]’과 같이 발음하는 것이 표준 발음이다. 다만 이 규정은 ‘협의, 신의’ 등과 같이 앞말의 받침이 뒷말의 초성으로 이동하여 ‘ㅢ’ 앞에 자음이 오게 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다만 4 참조)

‘다만 4’에서는 ‘다만 3’에서 다루지 않은 환경에서 ‘ㅢ’가 다른 단모음으로 발음되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이중 모음 ‘ㅢ’는 현대 국어에서 발음상의 변이가 심하기 때문에 이것을 고려하여 이 조항에서는 다양한 복수 표준 발음을 인정하였다. 기본적으로는 ‘다만 3’의 경우를 제외하면 ‘ㅢ’를 표기와 동일하게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되 이것 외의 다른 발음들도 허용한다.

우선, 단어의 둘째 음절 이하에 표기된 ‘의’는 [ㅢ] 이외에 [ㅣ]로 발음하는 것도 인정한다. 그래서 ‘주의’와 같은 단어는 [주의]가 원칙이지만 [주이]로 발음해도 표준 발음으로 인정된다. ‘협의’의 경우 받침 ‘ㅂ’이 초성으로 이동하면 [혀븨]가 되어 ‘다만 3’과 비슷해지지만 원래 표기는 ‘협의’이므로 ‘다만 3’과 달리 표준 발음상의 원칙은 [혀븨]이고 [혀비]도 허용한다.

다음으로 관형격 조사 ‘의’는 [ㅢ]로 발음하는 것이 원칙이되 현실 발음에 따라 [ㅔ]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한다. 그래서 ‘우리의’는 [우리의]와 [우리에]가 모두 표준 발음이다. ‘강의의’의 경우 조항에 제시된 표준 발음은 두 개이지만 실제로는 네 가지로 읽을 수 있다. 원칙은 [강:의의]와 같이 ‘의’를 모두 [ㅢ]로 발음하는 것인데, ‘[강:의에], [강:이의], [강:이에]’와 같이 ‘의’를 단모음으로 발음하는 것도 허용된다. 다만 이 조항에서는 편의상 원칙으로만 이루어진 표준 발음([강:의의])과 허용으로만 이루어진 표준 발음([강:이에]) 두 가지만 제시했다.